

## 李之儀의 戀情詞와 詞論

정태업\*

### 【목 차】

1. 序言
2. 李之儀의 生涯
3. 李之儀 戀情詞 속 그리움
4. 李之儀 詞論으로 본 戀情詞
5. 結語

### 【초록】

李之儀는 소식 문하의 사인이다. 그러나 그의 사는 소식의 호방사와 다른 부드럽고(淸婉) 섬세(峭茜)한 풍격을 가진다. 또 그의 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연정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그의 인생 경력과 그의 사에 대한 관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그는 폄적지인 당도에서 가기 양주와 운명적으로 만나 그녀와 가정을 이루지만 다시 헤어지게 된다. 이런 만남과 이별이라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지의는 그녀를 위해 많은 연정사를 짓게 된다. 이지의 사가 완약 청신하며 민가풍의 교악부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개인적 인생사에서 연유되었던 바가 크다. 아울러 그의 사론은 청신한 사 창작의 또 다른 기준이 되었다. 본고는 이지의 연정사와 사론을 통해 이지의 사 풍격 형성의 소이연을 고찰했다.

【키워드】 李之儀, 戀情詞, 詞論, 歌妓, 楊姝, 風格, 生涯

\* 정태업.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pufs1@bufs.ac.kr)

## 1. 序言

송대 사인과 작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李之儀 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인들에 비하여 일천하다. 먼저 중국 내에서 이지의 사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을 붙인 책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지의 사에 대한 논문은 한편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의 「卜算子」(我住長江頭)는 송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의 모든 판본의 『宋詞三百首』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지의 사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널리 애창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왜 인구에 회자하는 이지의 사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卜算子」를 제외하고는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혹은 대부분의 사들이 평범한 민가적 詞語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후대 학자들이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덜 가졌을 수도 있다. 또 그가 쓴 대부분의 사 작품이 연정적 내용이기 때문일 수 있다. 어떤 이유였던 지금까지 이지의 사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왔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과 그 속에서 배어 나온 그의 진솔하고 서정적 사 작품들은 새롭게 조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이지의 연정사를 그의 생애와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의 굴곡 많은 삶이 사의 내용과 풍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펴적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정사는 그 대상이 누구였고 내용과 풍격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청조 보다 앞서 서술된 그의 사론을 통해 이지의가 어떤 기준으로 사를 창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李之儀의 生涯

李之儀(1048-미상)는 字가 端叔이고 號는 姑溪居士로 滄州無隸(山東無隸) 사람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생졸 연대에 대한 많은 異見이 있다<sup>1)</sup>. 『宋史·李之儀傳』을 보아도 112글자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

1) 李之儀의 생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의 출생은 대부분 宋 仁宗 慶曆8년(1048)으로 보고 있지만 그의 죽은 해는 역사적 기록이 없기에 의견이 분분하다. 張仲謀는 「李之儀年表」에서 徽宗 宣和7년(1125)으로, 王兆鵬은 「李之儀年表補正」에서 宣和末年(1125경)으로, 鄧子勉은 「李之儀生卒年考辨」에서 高宗 建炎 元年(1127)으로 曾棗莊은 「李之儀年譜」에서 建炎2년

그의 생졸 연대에 대한 많은 異論의 실마리를 낳고 있다. 그의 貫籍에 대해서도 의론이 분분하다. 『四庫全書總目·姑溪居士文集提要』에서 『宋史』에서는 이지위의 貫籍을 滄州 無隸人이라 하였지만, 동시대인 吳芾는 「姑溪集序」에서 景城(河北省 交河東北)人이라하여 이 설을 따르면서 논의가 분분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曾棗莊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李之儀 先代の 原籍은 滄州無隸(山東)人이고 祖父 때부터 楚州(지금의 江蘇 淮安)으로 옮겨와 살았다고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있어 그의 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sup>2)</sup>

이지위는 처음에는 范仲淹의 아들인 范純仁으로부터 배웠다. 그 후 治平4年(1067)년경에 진사 급제한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후 원풍 2년(1079)에 萬全縣令(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市 萬全區)으로 부임했다 후에 鄜延軍(지금의 陝西省 延安市)에서 근무했고 元豐6년(1083)에 수도로 돌아왔다. 그 당시 고려11대 文宗이 崩御(1083)하여 송 조정에서 左諫大夫 楊景略이 祭奠使를 맡고 이지위가 書狀官을 맡아 조문을 다녀왔다.<sup>4)</sup>

哲宗 元祐3년(1088)경에 스승이었던 范純仁이 尚書右仆射 겸 中書侍郎이 되면서 이지위도 따라서 樞密院 編修官이 되었다. 이지위는 당시 蘇軾, 黃庭堅, 秦觀과 깊은 교유를 했다. 元祐8년(1093) 哲宗이 親政하면서 章敦을 재상으로 삼고 다시 신법을 주장하며 구법당을 몰아내자 蘇軾은 하북성 定州 知州로 좌천되어 갔다. 이지위는 소식을 따라가 定州幕府로 가 매일 같이 소식과 그의 문하 사람들과 시문을 주고받

(1128)으로 任群은 「李之儀卒於建炎元年考」에서 建炎元年(1127)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王星은 다시 「再論李之儀卒於政和八年」에서 政和8년(1118)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지위가 1118년 이후에는 남기고 있는 실질적 문헌이 없음을 근거로 볼 때 政和8년(1118)경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曾棗莊는 「李之儀年譜」에서 『姑溪居士全集』卷50에 실린 「李氏歸葬記」에 이지위의 선대는 滄州 無隸에 대대로 지냈는데 조부 때부터 벼슬을 하면서 楚州에 부임하면서 옮겨 살게 되었다고 쓰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의 관적을 고증했다. 이지위 본인 스스로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면서 쓴 글이기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지위의 進士及第 년도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四庫全書叢目·姑溪居士文集提要』나 『宋詩紀事』권28 등에는 이지위를 ‘元豐進士(1078-1085)’라고 쓰고 있고 이를 따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宋史』에서는 “급제한지 근 삼십년, 소식을 따라가 정주 막료가 되었다.(登第幾三十年, 乃從蘇軾于定州幕府)”고 말하고 있다. 이지위 자신의 手簡에서도 “이리저리 얼마나 떠돌았던가, 근 삼십년 지나, 하간의 막료가 되었네,(流落何堪, 幾三十年, 爲河間賓客矣. 「與趙仲強兄弟」 『姑溪居士全集』卷25)”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河間이란 定州를 말한다. 蘇軾이 定州의 知州로 있었던 시기는 元祐8년(1093)이다. 만약 元豐년간에 과거에 합격했다면 과거시험이 있었던 해를 볼 때 원풍2년(1079)에 합격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지위가 소식의 막료로 가 있었던 시기는 급제한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스스로 쓴 글과 모순된다. 따라서 治平4年(1067)에 급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지위의 고려 사절로 온 것에 대해 『宋史』卷487 元豐6年을 보면 “徽卒, 在位三十八年, 治尚仁恕, 爲東夷良主. (中略) 訃聞, 天子聞焉, 詔明州修浮屠供一月, 遣楊景略 王舜封祭奠, 錢勰 宋球弔慰. 景略辟李之儀書狀, 帝以之儀文稱不著, 宜得問學博洽 器宇整秀者召赴中書, 試以文乃遣.”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쉽게도 『高麗史』에는 이지위에 대해 언급한 문헌을 찾을 수 없다.

으며 깊이 교류했다. 이후 紹聖4년(1097)에 原州 通判에 임명되었다. 元符二年(1099) 監內香藥庫로 추천 되었으나 御史 石豫가 이지의를 소식의 막료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경성에서 벼슬을 하지 못하게 했다. 徽宗 崇寧元年(1102)에 河東 常平으로 천거되었지만 스승의 范純仁의 遺表와 行狀을 썼다는 이유로 당시 권력가였던 蔡京의 미움을 사 御史臺에 잡혀가 고초를 겪고 太平州(安徽 當塗)로 編管되었다. 이지의는 당도에 있는 동안 실로 많은 일을 겪게 된다. 그의 『姑溪居士全集』『與祝提舉無黨』에 보면 “태평주에 온지 4년이 되었는데, 첫해에는 子婦가 죽고, 두 번째 해에는 병이 들어 봄부터 여름까지 기력이 빠져 죽을 뻔 하고, 세 번째 해에는 喪妻를 하고 연이어 자식들을 잃게 되었다. 넷째 해에는 옥창이 온몸에 퍼지고 감기로 고생했다.”<sup>5)</sup>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당도에서 4년간의 껍적 생활을 하고 崇寧5년(1106)에 사면되어 관직이 회복되어 朝議大夫를 하사 받지만 거절한다. 다시 이지의는 成都玉局觀 벼슬에 천거된다. 이후 金陵(南京)으로 옮겨가 吳越 지방을 여행하며 大觀2년(1108)까지 지내다 다음해 대관3년(1109) 되던 해에 다시 당도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의 당도에서의 삶은 평온하지 못했다. 政和3년(1113)에 蔡京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이지의와 가기 양주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음서제도에 따라 관직을 준 것을 문제 삼는다<sup>6)</sup>. 결국 이지의는 평민으로 강등 되고 가족들과 헤어져 살게 된다. 이지의 사를 대표하는 「卜算子」와 같은 연정사 대부분이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政和六年(1116) 다시 대사면이 있어 이지의는 다시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그 후 만년의 그의 행적은 많이 존재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볼 길이 없다. 다만 스스로를 ‘姑溪居士’라 칭하며 부모와 가족들의 묘를 당도로 이장하고 부인과 가족의 묘를 모두 이곳에 둔 것을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太平州 姑溪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학문적으로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소동파였다. 소식이 이지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 작품들에서도 잘 보이는데 『姑溪居士全集』에 수록된 소식과 관련된 작품들은 40여수나 된다. 마찬가지로 소식의 시문집에 수록된 이지의 관련 작품도 20여수나 된다. 소식이 이지의 보다 연장자였기에 이지의에게 소식은 스승이자 인생의 귀감이 되는 존재였다. 이런 모습은 熙寧4年(公元1071年) 소식이 杭州, 密州, 徐州로 좌천되어 지방을 돌다가 다시 黃州로 폄직되어 지낸 10여 년 동안 잘 나타난다. 이지의는 소식을 위해 조정의 대신들이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관료들

5) 某到太平州四周年, 第一年喪子婦, 第二年病悴, 涉春徂夏, 劣然脫死. 第三年亡妻, 子女相繼見捨. 第四年初, 則癰瘡被體, 已而寒疾爲苦. 『姑溪居士全集』, 卷21, 中華書局, p.162.

6) 송대에는 음서제도가 있어 五品以上の 文官 자식이나 손자 등은 從8品에서 從9品까지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7) 자신 또한 죽은 후 當塗에서 장사지내고 藏雲山 致雨峰에 묻힌 것으로 볼 때 죽을 때 까지 당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구명운동을 펼쳤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생각을 써서 황주에 있는 소식에게 보냈다. 소식은 이지와의 서찰을 본 후 감동하여 즉시 「答李端叔書」를 써서 자신의 심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서찰에서 소식은 관료사회에 대해 염증을 느끼어 명성과 이익을 멀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농사지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노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sup>8)</sup> 평탄하지 않은 벼슬살이는 두 문인의 우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그의 문장을 “아주 예리하고 뛰어나며 종종 소식의 문체가 있다.(然他作亦皆神鋒俊逸, 往往具蘇軾之一體)”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시가나 문장이 소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姑溪居士前集』 50권, 『後集』 20권으로 모두 70권이 있다. 이 전후집은 모두 詩·詞·文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姑溪詞』 판본은 毛晉의 汲古閣本이고 『四庫全書』도 모진의 급고각본을 底本으로 수록하고 하고 있다. 滄州無隸 중 李之儀 詞도 급고각본을 위주로 담고 있다. 唐圭璋선생의 『全宋詞』에는 모두 45개의 詞調 94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를 저본으로 삼고자 한다.

### 3. 이지의 戀情詞 속 그리움

이지의 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詠懷詞가 14수, 戀情詞가 51수, 詠物詞가 4수, 送別詞가 1수 祝壽詞가 1수, 기타 작품이 23수 있다.<sup>9)</sup> 다시 이들을 小令과 慢詞로 나누어 살펴보면 62글자이내의 小令작품 71수이다. 이 가운데 戀情 관련 작품이 33수이고 기타 작품이 38수이다. 62글자 이상의 慢詞는 모두 그 가운데 연정을 노래한 작품이 18수이고 기타 작품이 5수이다. 즉 전체 작품 94수 가운데 연정을 담은 작품이 51수가 되어 작품수의 반을 넘는다. 다시 연정을 노래한 작품 가운데서 그리움을 읊은 작품은 소령 21수, 만사 15수로 도합 36수이다. 이는 전체 작품의 40프로를 차지한다.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많은 그리움의 연정사를 지었다. 이런 연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지의 사 풍격에 대해서는 역대로 다양한 평론이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평하기를 “그 사 또한 정교하며, 짧은 소령은 더욱 맑고 부드럽고(淸婉) 섬세하여(峭茜), 대저 秦觀에 모자라지 않

8) 이밖에 「與李公擇書」, 「次韻答李端叔」 등의 서신에서도 소식과 이지와의 교류 내용이 잘 드러난다.

9) 韓華, 『李之儀及其詩詞創作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p.25.

는다.(小令尤清婉、峭茜, 殆不減秦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지와의 연정사를 읽어보면 그의 사풍이 화간사풍을 이어 받으면서도 張先이나 柳永사의 格調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먼저 이지의가 定州 幕府로 있으면서 쓴 「怨三三」이라는 작품을 통해 초기 이지의 사의 풍격적 특징을 살펴보자.

「怨三三」

清溪一派瀉揉藍.	맑은 개울 여린 쪽 풀 쓸어내고,
岸草氍毹.	언덕 풀빛은 흐드러져.
記得黃鸝語畫檐.	피꼬리 화려한 처마에서 지저귄 때 생각나네.
喚狂裡、醉重三.	미친 듯이 부르며 동구에게 취했었지.

春風不動垂簾.	봄바람은 드리운 주렴을 어찌지 못하고,
似三五、初圓素蟾.	보름달인 듯 달은 막 차오르네.
鎮淚眼廉纖.	가랑비처럼 흐르는 눈물을 참노니.
何時歌舞,	언제 노래와 춤으로
再和池南.	연못 남쪽에서 다시 할까?

이 사는 이지의가 定州 幕府로 있으면서 官妓 董九를 좋아하게 되어 쓴 작품이다. 詞調名이 ‘怨三三’인 것도 구자(九)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상편에서는 맑은 개울의 풍광과 그에 어우러진 피꼬리 지저귀던 것과 그때 술자리에서 동구와이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현재적 시점에서 그녀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하편 첫 구에서 봄바람이 주렴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비유를 통해 만나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듯하다. 다음 구에서는 떠오르는 보름달을 통해 그녀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그리운 마음을 표현해 내었다. 당시 정황은 이지의와 가까웠던 소동파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立春日小集戲李端叔<sup>11)</sup>」이라는 작품에 그와 연관된 내용이 나온다. 시의 제목도 ‘입춘 날 작은 모임을 가지며 이지의를 놀리다.’라고 한 것만 보아도 이지의가 동구에게 폭 빠져서 가슴 졸이는 것을 유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시

10) 劉默은 이지의 사가 柳永詞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지와의 만사는 평범한 용어를 써서 생동하고, 세밀하고 완곡하게 정감을 풀어내어 유영사의 풍미가 느껴진다. 「사지춘」이 그 한 예이다.(李之儀의慢詞, 用語俚俗生動, 抒情細膩婉曲, 很有柳詞風味, 這首「謝池春」即是其中一例)” 劉默, 『宋詞鑑賞大全集』, 中國華僑出版社, 2012, p.187.

11) 「立春日小集戲李端叔」, 白髮已十載, 青春無一堪. 不驚新歲換, 聊與故人談. 牛健民聲喜, 鴉嬌雪意酣. 霏微不到地, 和暖要宜蠶. 歲月斜川似, 風流曲水慚. 行吟老燕代, 坐睡夢江潭. 丞掾頗哀援, 歌呼誰怕參. 衰懷久灰槁, 習氣尚饒貪. 白啖本河朔, 紅消真劍南. 辛盤得青韭, 臘酒是黃柑. 歸臥燈殘帳, 醒聞葉打庵. 須煩李居士, 重說後三三.

구 중에 ‘틀림없이 번민에 빠진 이거사, 또 후삼삼(동구) 이야기를 하네(須煩李居士, 重說後三三)’ 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를 두고 남송 施元之는 『施注蘇詩』에서 “顧禧(약1131년 전후사람)의 말을 인용해 ‘이때 막 제비들이 노니는 것을 서술하고 바로 다음에 ‘후삼삼’ 이라는 말을 해서, 독자들이 왕왕 그 소이연을 모르고 있다. 아마도 이지위가 정주 막료로 있을 때 특별히 관영의 기생인 동구를 좋아하여 ‘九’ 라는 숫자로 이렇게 놀린 것이다.<sup>12)</sup>” 라고 했다. 유희적으로 썼다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또 용어에 있어서도 상편의 ‘清溪’ ‘黃鸝’ ‘畫檐’이나 하편의 ‘春風’ ‘垂簾’ ‘淚眼’ 등 화간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어들을 쓰고 있다. 내용상에 있어서도 님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 이지의 사가 완악한 화간사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편적 가기 전에 쓴 작품으로 추측되는 「謝池春」이라는 작품도 크게 다르지 않다.

「謝池春」

殘寒銷盡,  
疏雨過、清明後.  
花徑斂餘紅,  
風沼縈新皺.  
乳燕穿庭戶,  
飛絮沾襟袖.  
正佳時,  
仍晚晝.  
著人滋味,  
真個濃如酒.

꽃샘추위도 점차 누그러지고,  
보슬비 내리고, 청명절도 지나가네.  
꽃길에서 떨어진 꽃잎을 주울 때,  
바람타고 연못에는 새로운 물결이 이네.  
어미 제비는 처마 밑을 드나들고  
버들 솜 옷소매로 날아든다.  
때는 아름다운 계절,  
여전히 밤이 가고 낮이 오지만  
사람이 느끼는 맛은  
정말 독한 술과 같아라.

頻移帶眼,  
空只恁、厭厭瘦.  
不見又思量,  
見了還依舊.  
爲問頻相見,  
何似長相守?  
天不老,  
人未偶.  
且將此恨,

허리띠 헐거워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하릴없이 이리되니 몸도 마음도 여위네.  
보지 못하니 다시 생각나고  
보면 또 헤어져 그리움만 여전하네.  
자주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어찌 늘 같이 함에 비할까?  
하늘도 무심하여  
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이 허전한 마음,

12) 顧禧云：此時方叙燕游，而遽用后三三語，讀者往往不知所謂。蓋端叔在定武幕中，特悅營妓董九者，故用九數以爲戲爾。『蘇軾詩集』，中華書局，p.2014.

分付庭前柳.

뜰 앞 버드나무에 맡기네.

이 사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화간사풍의 작품이다. 상편에 서는 이른 봄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첫 세 구에서는 추위가 그치고 청명절을 막 지낸 비에 젖은 봄날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네 구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주변의 풍경을 그려냈다. 떨어진 꽃잎을 줍는 모습, 연못에 이는 물결의 모습, 제비가 처마로 날아드는 풍경을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다음 구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버들가지가 옷소매로 날아든다는 것도 봄날의 모습이지만 이는 사의 주인공이 혼자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다음 구에서 낮밤이 바뀌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독한 술과 같은 맛이라 묘사하고 있다. 혼자된 허전함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 독한 술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하편에서는 그러한 심경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편 첫 두 구에서는 그리움에 여위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 너무 보고 싶어 잠시의 헤어짐도 참을 수 없다 한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자주 보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자주 보는 것이 어찌 같이 있는 것 같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마치 대화하는 듯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다. 마지막 4구에서는 李賀의 시구 ‘하늘이 만약 정이 있다면 하늘도 늙어갈 텐데(天若有情天亦老)’라는 시구에 답하듯 하늘은 정이 없기에 늙지 않지만 자신은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있으니 허전하기 그지없음을 표현했다. 특히 끝 구절에서 이별의 상징인 버드나무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다. 화간사 처럼 완약한 풍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高峰은 「論李之儀詞의童眞之美」에서 “그는 특별히 『화간집』을 표준으로 삼아 첨사한 많은 작품들에서 화간사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사 작품의 진실 되고 뜻깊은 내용이나, 맑고 빼어나며 청담한 필치, 친근한 언어로 깊은 뜻을 나타내는 예술적 효과는 모두 韋莊사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sup>13)</sup>고 했다. 이 작품에서 특히 그러한 화간유풍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婉美한 화간사풍을 그대로 답습하던 이지의 사는 정치적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씩 풍격이 달라진다. 元符三年(1100年) 正月에 哲宗이 붕어하고 徽宗이 즉위하여 태후가 섭정하면서 원우 舊法黨 사람들을 복권시켜 이지의도 河東常平으로 천거된다. 그런데 다음해 建中靖國元年(1101年)에 스승인 范純仁이 병이 깊어져 스스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이지의를 불러 자신이 구술하는 遺表(관원이 마지막으로 정치적 견해를 조정에 올리는 유언)를 받아쓰게 했다. 그 후 范純仁이 죽자 이지의는

13) 他又特别标举『花间集』, 所填制的诸多词作处处带有花间词的印记, 其词作情真意深的内容、清秀疏淡的笔触、言近旨远的艺术效果, 都非常明显地收到了韦庄词风的影响. 「论李之仪词的童真之美」, 『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 2014, p.65.



존경하는 마음으로 范純仁의 遺表를 정리했고 또 그의 行狀을 써서 스승의 생전 행적과 공덕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崇寧元年(1102年) 奸臣 蔡京이 신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빌려 조정을 장악하게 되고 구법당 사람들에게 개인적 보복을 했다. 채경은 范純仁의 유표 중에서 신법에 반대하는 내용<sup>14)</sup>들을 문제 삼아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던 范純仁의 아들 范正平을 모함했다. 솔직한 성격의 이지의는 자진해서 자신이 유표를 썼으며 范正平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려 했다. 이에 하옥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지의의 부인 호씨(胡淑修)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지기를 매수해서 范氏 집안으로 들어가 范純仁 行狀 原稿를 빼왔다. 그녀는 직접 조정에서 이지의를 위해 상소했다. 이후 이지의는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太平州(安徽 當塗)로 編管<sup>15)</sup>되어 갔다. 마침 이지의가 當塗에 도착했을 때 黃庭堅은 태평주의 知州로 부임 받아 왔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9일 만에 다시 파직되어 宜州(廣西 宜山)로 폄직가게 되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이 唱和하며 지은 작품이 「好事近」이다. 이때 황정건은 편관되어 온 이지의를 위하여 官妓인 楊姝를 불러 특별히 위로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지의는 이렇게 폄직지인 當塗에서 楊姝를 알게 되었다. 아마 황정건과 함께한 이 자리가 양주를 처음 알게 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정건의 「好事近」 작품을 보자.

「好事近」(太平州小妓楊姝彈琴送酒)

태평주 가기 양주가 거문고를 타기에 술을 보내며)

一弄醒心弦,	한번 연주하니 심금을 깨워,
情在兩山斜疊.	감정은 두 산에 기울어져 겹치네.
彈到古人愁處,	옛사람 근심 연주했을 때,
有真珠承睫.	눈매에는 진주 같은 눈물이 맺히네.
使君來去本無心,	그대 오고 감에 본래 무심하려 했는데,
休淚界紅頰.	눈물 그치자 붉은 붉어지네.
自恨老來憎酒,	더 슬픈 것은 늙어 술도 마실 수 없음이니,
負十分蕉葉.	차 한 잔 가득 부어 마시겠네.

14) 范純仁은 유표에서 “고태후에 대한 비방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고태후의) 폐하(철종)를 보좌하고자 하는 걱정과 노력을 돌아보지 않게 했습니다. 신은 폐하가 성군으로 오르기 만을 염려하는 바이며, 신이 바라는 바는 종묘사직의 무궁함입니다.惟宣仁(指高太后)之誣謗未明, 致保佑之憂勤不顧. 臣所惜者陛下上聖之姿, 臣所愛者宗社無疆之業”라고 했다. 이는 구법당을 지지했던 고태후의 정책이 옳고 황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신법을 반대한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15) 송대 관리가 죄를 지으면 먼 곳으로 유배되어 그 지방의 호적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지방관리가 관할하게 되어 있어서 ‘편관’이라 했다. 이런 처분을 받은 관원은 형벌은 받는 것과 같아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황정건과 이지의는 모두 蘇軾 門下의 사람이었다. 본래 오랜만에 만나 너무나 반가워야 될 두 사람이지만 급격히 변해버린 정치적 상황으로 한 사람은 폄적되어 오고 한 사람은 파직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황이니 두 사람은 말로 다하지 못할 침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상편에서는 침울한 심정으로 양주의 연주를 듣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양주의 연주에 억눌려 왔던 슬픈 감정이 요동침을 묘사했다. 이어 켜켜이 쌓이는 두 사람의 감정을 두 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구에서는 양주가 연주한 ‘履霜操’가 더욱 슬픈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저절로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고 했다.<sup>16)</sup> 하편에서는 황정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당도에 온 이지의에 대해 태연하게 대하려 했지만 저절로 눈물이 나고 뺨이 붉어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술도 마실 수 없는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차 한 잔 가득 부어 마시겠노라고 했다. 감정을 절제 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안타깝고 절절한 심정이 드러난다. 황정건에 비해 이지의의 次韻詞는 같은 글자로 압운했지만 그 느낌은 조금 다르다. 아마도 이지의의 감정이 더 격해진 것 같다. 이지의의 작품을 보자

「好事近」(與黃魯直於當塗花園石洞聽楊姝彈「履霜操」, 魯直有詞, 因次韻.)

황정건과 당도 화원 石洞에서 楊姝가 타는 「履霜操」를 듣고

황정건이 사를 지어 이에 차운한다.

相見兩無言,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보지만,
愁恨又還千疊.	근심은 다시 천만번 인다.
別有惱人深處,	이별에 깊은 근심 이는 곳은,
在槽騰雙睫.	바로 희미한 그대의 두 눈.

16) ‘履霜’이란 말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로 직역하면 ‘서리를 밟으며 한파가 곧 닥침을 안다(履霜 堅冰至)’라는 뜻인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충절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履霜操는 樂府의 曲名이다. 周나라 尹吉甫의 아들 伯奇가 지은 곡으로 백기는 죄가 없었는데 계모의 모함으로 쫓겨나 연잎을 모아 옷으로 삼고 배꽃을 따서 먹었다. 새벽 서리를 밟고 나가 스스로 쫓겨난 것을 비관하며 수금을 끌어안고 이 곡을 연주했고 곡이 끝나자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범중엄은 평생 이 한곡만을 연주했다고 한다. 陸游는 『老學庵筆記』에서 “범문공은 거문고 타기를 좋아했는데, 다만 평소에는 ‘여상’ 한곡만을 연주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범여상이라 불렀다.(范文正公喜彈琴, 然平日只彈「履霜」一操, 時人謂之范履霜)”. 범중엄이 여러 번 고난을 겪지만 나라에 대한 충절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런 자신의 심경을 ‘여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황정건과 이지의가 고단을 당함이 마치 범중엄이 고난을 당함과 같아서 절대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절개를 지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지의가 范仲淹의 아들인 范純仁로부터 배웠고 그를 위해 유표를 쓰다 고초를 겪은 것을 위로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심중을 알았다는 듯 양주는 여상곡을 연주한 것이다. 세 번째 구의 ‘古人’은 바로 范仲淹을 말한다.

七弦雖妙不須彈,  
惟願醉香頰.  
只恐近來情緒,  
似風前秋葉.

칠현 연주 빼어나나 더 연주할 필요 없는 것은,  
아름다운 그대 얼굴에 취하고 싶기 때문이라.  
다만 걱정 되는 것은 요즘 마음이,  
바람 앞에 낙엽 같기 때문이라.

이 사는 짧지만 크게 두 내용으로 나뉜다. 상편에서는 이지와의 황정견에 대한 마음을 하편에서는 양주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먼저 상편에서는 편적을 오가는 두 사람의 심경을 읊고 있다. 편적을 당한 것도 큰 슬픔인데 다시知己를 만나자 바로 이별해야 하는 것은 더 슬픈 상황이다. 그래서 근심은 수 천 번 일어난다고 했다. 이것도 슬픈 일인데 마주한 황정견의 수심 가득한 눈(有真珠承睫)을 보니 더욱 근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疊’과 ‘睫’라는 압운자를 써서 근심이 쌓이고 눈물이 맺힘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편에서는 황정견과 다르게 이지와의 양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첫 구에서 양주가 타는 거문고는 듣기 좋지만 더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하고 싶다고 한다. 끝 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로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자신을 가을바람 앞의 낙엽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황정견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양주를 처음 만나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지와의 이어서 양주의 연주를 듣고 「淸平樂」을 쓴다.

「淸平樂」(聽楊姝琴 양주의 거문고 가락을 듣고)

殷勤仙友.

은은한 선녀 같은 그대,

勸我千年酒.

나에게 천년주를 권한다.

一曲履霜誰與奏.

한곡의 「履霜調」 누구와 더불어 연주하나

邂逅麻姑妙手.

해후한 마고선녀의 아름다운 손길.

坐來休嘆塵勞.

이제 세상사 고달픈 탄식 말지니

相逢難似今朝.

서로 만나기 요즘처럼 어려울까?

不待親移玉指,

마다하지 않고 친히 섬섬옥수로 연주하니,

自然癢處都消.

자연스레 마음 가려운 곳 모두 해소되네.

양주의 가야금 타는 것을 듣고 지은 사이다. 상편에서는 양주의 인물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녀 같은 아름다운 그녀와 술을 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처음 만나 구성진 「履霜曲」 연주를 하는 그녀의 모습과 섬섬옥수를 묘사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이지와의 양주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하편 첫 두 구의 내용은 황정건과 양주에게 고달픈 현세의 삶에 대해 탄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구에서 서로 만나기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의적 표현으로 보인다. 황정건과의 어렵사리 만나자 바로 이별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이지와의 당도에 도착하면서 평생을 함께할 양주를 만난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하는 순간의 감정을 ‘서로 만나기 요즘처럼 어려울까?’라는 구절을 통해 묘사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지와의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 양주의 거문고 연주를 통해 해소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만나 깊은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지와의 연정사에는 부제를 통해 누구를 위해 쓴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부제를 달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정사가 양주를 두고 지었음은 그의 생애와 사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위 작품과 이어진 연작 「淸平樂」(再和)에서도 이지와의 양주에 대한 깊은 정은 잘 나타나고 있다.

「淸平樂」(再和 다시 화운하며)

當時命友.	당시 운명적으로 만나
曾借鄰家酒.	이웃집 술을 빌리기도 했었지.
舊曲不知何處奏.	옛 연주하던 그 곡을 지금은 어디에서 연주하는지,
夢斷空思纖手.	꿈결에서 깨어나 부질없이 그대 섬섬옥수 생각하네.
卻應去路非遙.	길도 멀지 않아 마땅히 가야하거늘.
今朝還有明朝.	오늘 또 내일 하네.
謾道人能化石,	사람이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지니
須知石被人消.	돌도 사람에 의해 소멸될 수 있음을 알지니.

앞의 「淸平樂」(聽楊姝琴)에 다시 창화해서 쓴 작품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앞서의 작품과 시간적 간극이 있음을 할 수 있다. 절절하게 보고 싶은 그리움을 주제로 쓴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두 사람의 추억을 쓰고 있다. 처음 운명적 만남과 같이 한 술자리를 회상하고 있다. 아마 황정건과의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구절에서는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그 옛날 연주했던 곡을 연주하고 있을까 생각한다. 상편 마지막 구에서는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보고 싶은 그녀의 아름다운 손이 그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의 작품 상편 마지막 구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손을 ‘해후한 마고선녀의 아름다운 손길(邂逅麻姑妙手)’이라 묘사했기에 같은 흐름으로 쓴 것 같다.

상편 전체를 통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첫 두 구에서는 길이 멀지도 않은데 가보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그리운 마음에 돌이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돌도 사람에 의해 깎이고 없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즉 양주는 이지의에 대한 그리움에 그만 망부석이 될 것 같다고 말했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지의는 망부석이란 돌도 결국 풍파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이지의가 양주 보다 더 절절한 그리운 마음을 참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서로를 그리는 뜨거운 마음이 잘 느껴진다. 이지의의 양주에 대한 애정이 이어진다. 다시 「浣溪沙」(為楊姝作)를 보자.

「浣溪沙」(為楊姝作 양주를 위해 짓다.)

玉室金堂不動塵.	옥실금당에 먼지하나 일지 않고,
林梢綠徧已無春.	숲 나뭇가지 이미 봄기운도 사라지고,
清和佳思一番新.	맑고 아름다운 생각에 또 한 번 새로워.

道骨仙風雲外侶,	선녀 같이 고아한 구름 저 넘어 그대,
煙鬟霧鬢月邊人.	연무 빛 머릿결의 달님 곁 사람.
何妨沈醉到黃昏.	황혼녘까지 깊이 취한들 어떠리.

부제에서 ‘양주를 위해서 짓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양주에 대한 이지의의 특별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 전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지 못하는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상편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堂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조용한 집안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좋은 생각에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그녀를 ‘선녀 같은 고아한(道骨仙風)’의 풍모를 지닌 멀리 구름 밖에서 찾아온 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앞의 작품 「清平樂」(聽楊姝琴)에서 양주를 ‘은은한 선녀 같은 그대(殷勤仙友)’와 ‘해후안 마고선녀(邂逅麻姑)’라고 그녀를 선녀로 묘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구에서는 그녀의 모습을 달나라에서 찾아온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런 멀리서 찾아온 선녀 같은 아름다운 그녀가 늦도록 함께 자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찾아온 그녀가 하루 종일 함께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헤어지기 싫어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품이다. 이지의가 양주를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사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양주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졌을 때 쓴 것

으로 보인다.<sup>17)</sup> 사 작품 전체를 통해 볼 때 아직까지는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지는 않고 화간사풍의 영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렇듯 애절한 두 사람의 관계는 부인인 호씨가 죽으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한다. 『姑溪居士文集』卷50의 「胡氏文柔墓志」와 「李氏歸葬記」를 보면 이지와의 당도에 도착한 첫해(1103)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3년째 되던 해(1105)에 아내 胡淑修(1047-1105)와 사별하고 큰 딸도 죽고 만다. 펴적을 당하고 전 가족을 잃게 된 이지에게 양주는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지는 아내가 죽은 다음해인 崇寧5년(1106)에 양주를 받아들여 함께 살게 되고 그해 겨울에 관직이 회복되어 金陵(지금의 남경)으로 이사를 한다. 大觀元年(1107)에는 堯光이라는 아들도 얻게 된다. 또 2년 뒤인 大觀2년(1108)에 딸을 얻게 되고 大觀4년(1110)에 다시 딸을 얻으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양주와의 관계는 길게 유지되지 못했다. 政和3년(1113년) 그는 양주 사이에서 난 아들 堯光의 蔭序 문제로 모함을 당해 심문을 받고 평민으로 강등되어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宋會要輯稿』에 따르면 이지의의 죄목은 무엄하게 양주가 난 자식을 자신의 아들이라 속여 관직을 받으려 했다.<sup>18)</sup>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26일 성도부 옥국사 관리인 이지의를 제명시키고 관직을 박탈했다. 태평주 당도현 지주 통판 손염, 태평주 사법 상자희, 사호 정통도 각각 관직을 박탈했다. 이지의의 자손이라는 자는 어미를 따르게 하고, 수여한 將仕郎 관직을 정지시키고 관직 증서를 압수 말소했다. 회동 사법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지의와 양주는 무엄하게 양주에게서 난 자식을 이지의 자신의 아들이라 속여 관직을 얻었다. 손염, 상자희, 정통은 정확히 조사하지 못했으므로 모두 처벌했다<sup>19)</sup>.

이런 모함의 직접적 발단은 이지의와 郭祥正(功父) 사이의 갈등에서 연유되었다.

17) 이 詞牌로 다시 唱和한 「浣溪沙」(再和)를 보아도 그의 양주에 대한 깊은 정이 느껴진다. ‘옛 그대로의 경관엔 먼지하나 없고, 서릿바람 뚫긴 곳에 봄이 미소 짓네. 누구를 위해 비녀 꽂고 화려하게 머리 단장하나. 흰 눈 속 그윽한 난초 아직도 여운이 남는 듯, 건우성 은하수 밤에 아무도 없고, 금빛 연꽃 같은 그대 온 곳에서 봄밤을 맞네.(依舊瑯玕不染塵. 霜風吹斷笑時春. 一簪華髮為誰新. 白雪幽蘭猶有韻, 鵲橋星渚可無人. 金蓮移處任塵昏.)’

18) 송대 평민이 歌妓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가 가기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지의가 펴적되어 왔을 당시 부인인 胡淑修가 살아 있었고 양주는 가기의 신분이었다. 부인이 죽자 양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아들인 堯光도 낳았다. 이지의가 復官이 되어 堯光에게 관직이 주어졌지만 요광이 자기 신분인 양주의 소생이라 문제가 된 것이다.

19) 九月二十六日, 管勾成都府玉局觀李之儀除名勒停, 知太平州當塗縣權通判孫郊, 太平州司法尚子熹, 司戶程通, 各冲替. 其之儀于[子]令随母, 已补假將仕郎补牒追夺毀抹. 淮东提刑司勘到之儀与杨姝踰濫及信凭杨姝所生男为己子, 增岁乞补, 孙郊、向子熹、程通失觉察, 故皆坐之. [清]徐松, 『宋會要輯稿』, 职官六八之二九, 世界書局, p.3922.

곽상정은 당시 당도에서 지명도 있는 문인이었다. 이지와의 처음 당도에 도착한 초기에는 그들은 시문을 교류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郭祥正은 그리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이지의가 시문으로 자신보다 유명하고 또 늙은 나이에 다시 아들을 얻고 관직까지 복직 되는 것에 심한 질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지의 또한 곽상정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 이지의는 당시 당도에 살았던 羅彥輔(羅朝議)를 위하여 묘지명을 쓰면서 ‘당도(姑熟)의 시내에는 두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맑고 하나는 탁하다.’고 했다. 당시 당도에는 강을 끼고 한쪽에 나언보가 살았고 한쪽에 곽상정이 살았다. 맑은 쪽은 나언보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탁한 쪽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곽상정을 빗대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원한이 곽상정으로 하여금 이지의가 자기인 양주와 살림을 차리고 양주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속여 관직을 얻으려 했다고 무고하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은 곽상정이 죽을 때 까지 계속 되었다<sup>20</sup>). 결국 이 일로 이지의는 평민으로 강등되고 양주도 처벌을 받아 두 사람은 떨어져 살게 된다. 이지의 사 가운데 많은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아마도 이 시기 자신의 양주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지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卜算子」도 아마 이 시기 양주와 헤어진 뒤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卜算子」

我住長江頭,	나는 장강 상류에 살고
君住長江尾.	님은 장강 하류에 사네.
日日思君不見君,	날마다 날마다 님을 생각하지만 님은 보이지 않고
共飲長江水.	같은 장강의 물만 마실 뿐이네.

此水幾時休?	이 강물은 언제 멎을까?
此恨何時已?	이 그리움은 어느 때 그칠까?
只願君心似我心,	다만 님의 마음 내 맘과 같길 바라며
定不負相思意.	그리운 마음 가눌 길 없네.

20) 이지의와 곽상정과 관계는 『揮塵後錄』권6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適郭功父祥正亦寓郡下, 文人相輕, 遂成仇敵. 郡娼楊姝者, 色藝見稱於黃山谷詩詞中. 端叔喪偶無嗣, 老益無謬, 因遂畜楊於家, 已而生子, 遇郊裡受延賞. 會蔡元長再相, 功父知元長之惡端叔也, 乃誅豪民吉生者訟於朝, 謂冒以其子受蔭, 置鞠受誣, 又坐削籍. 亦略見『徽宗實錄』. 楊姝者亦被決. 功父作俚語以快之云: ‘七十餘歲老朝郎, 曾向元祐說文章. 如今白首歸田後, 卻與楊姝洗杖瘡.’ 其不樂可知也. 初, 端叔嘗為郡人羅朝議作墓誌, 首云: ‘姑熟之溪, 其流有二, 一清而一濯.’ 清者, 謂羅公也. 蓋指濯者為功父. 功父益以怨深刺骨焉.”

만고에 절창되는 이지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작품 전체를 통해 그리움이 질게 배어난다. 첫 구의 시작을 일인칭 시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자신의 감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구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이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특정한 님(君)임을 밝히고 있다. 첫 두 구에서 나(我)와 님(君)이란 두 구체적 대상을 밝혀 사실적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머무는 장소는 장강상류와 장강하류라는 두 대척점을 제시해 물리적으로 얼마나 요원하며 얼마나 깊은 그리움을 자아낼지를 암시하고 있다. 세 번째 구에서는 첫 시작을 ‘日日(날마다 날마다)’라는 첩자를 통해 하루하루의 절박함을 나타냈다. ‘思君(님생각)’과 ‘不見君(님은 보이지 않고)’은 ‘생각(思)’하지만 ‘보이지 않음(不見)’이라는 詞語의 대비를 통해 간절한 심정을 나타냈다. 동시에 ‘君’자 반복을 통해 운율적 아름다움도 배가시켰다. 상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장강이라는 매개체와 장강의 물을 같이 마신다는 것을 통해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적으로는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나타냈다. 하편 첫 두 구에서는 다시 장강이라는 강물의 속성을 통해 두 사람의 심경을 표현했다. 장강이 마를 날이 없듯이 그리운 마음(恨)이 끝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첫 두 구의 첫 글자를 공히 ‘此(이)물’과 ‘此(이)한’이라는 ‘此’자를 반복해 절박함을 나타냈고 또 ‘幾時(언제)’와 ‘何時(어느 때)’를 통한 시간의 더듬을 나타냈다. ‘休(멎다)’와 ‘已(그치다)’도 의미적 중첩을 통해 갈급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중국적으로는 장강의 ‘水(물)’이 바로 ‘恨(그리움)’임을 표현하고 있다. 의미뿐만 아니라 음운적으로도 유사한 단어를 선택해 운율미를 살리고 음악적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願(바람)’과 ‘定(정함)’이라는 강력한 詞語를 사용해 끝없는 그리운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魏芳芳은 이지의 사를 “전 작품을 통해 清新하고 淡雅한 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구어와 같은 담백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정감이 스며들어 있다<sup>21)</sup>.”고 밝히고 있는데 적절한 평가라 할 수 있겠다. 이전의 작품들 보다 훨씬 깊은 서정성과 白描的 예술기법이 운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시 「玉胡蝶」을 보자.

「玉胡蝶」(以三闋見寄, 輒次其韻 보내온 세 수의 작품을 보고 이에 차운한다.)

坐久燈花開盡,	오래도록 앉아 있으려니 등불도 다하고
暗驚風葉,	어둠속 나뭇잎 바람에 나부끼어 놀라니
初報霜寒.	첫 서리가 내린다.

21) 그의 그리움의 사는 청신하고 담아하며 언어는 담백하지만 감정을 깊이 있다. 요염하지만 속되지는 않아서 마치 열은 화장을 한 품위 있는 아름다운 여인 같아서 맑고 빼어나며 미려하기도 하여 끝없는 여운이 있다.(他的相思之詞清新淡雅, 語淡情深, 媚而不俗, 就像一位着淡妝的氣質美女, 清秀美麗, 韻味無窮。) 魏芳芳, 『李之儀詞研究』, 湘潭大學 碩士論文, 2011, p.10.



冉冉年華催暮,  
顏色非丹.  
攪回腸、  
蛩吟似織、  
留恨意、  
月彩如攤.  
慘無歡.  
篆煙縈素,  
空轉雕盤.

유유한 세월은 저물어 감을 재촉하고  
안색은 젊음을 잃어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을 휘저어,  
귀뚜라미 소리는 베를 짜는 소리인 듯,  
아쉬움이 남듯  
달빛도 늘어지는 듯.  
사는 낙 없음을 슬퍼한다.  
향 연기 실처럼 피어올라  
부질없이 향로를 감도네.

何難.  
別來幾日,  
信沈魚鳥,  
情滿關山.  
耳邊依約,  
常記巧語綿蠻.  
聚愁窠、  
蜂房未密,  
傾淚眼、  
海水猶慳.  
奄更闌.  
漸移銀漢,  
低泛簾顏.

어찌나 힘겨운지!  
헤어짐이 몇 날인가,  
소식은 없고  
그리움만 관산에 가득.  
귓가에 여전한 약속,  
늘 그 달콤한 속삭임 기억하네.  
근심주머니 모으니,  
별집이 오히려 성근 듯.  
쏟아지는 눈물에,  
바닷물이 오히려 부족한 듯.  
밤은 더욱 깊어만 가니.  
점차 은하수가 돌아  
주름 사이로 얼굴을 비추네.

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깊은 밤 풍경과 함께 주인공의 복잡한 심사를 풀어내고 있다. 먼저 첫 구절에서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다 등불마저 다 타버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떨어지는 나뭇잎과 서리 내린 스산한 풍경에 더하여 귀뚜라미가 울고 달무리가 퍼져있는 늦가을 밤의 정경을 씩씩하게 그려내었다. 이런 풍경과 더불어 자신의 초췌해진 모습과 함께 적적하고 서글픈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상편 끝 두 구에서는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움직임 없는 적막한 공간을 채우는 것을 통해 허전하고 쓸쓸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편에서는 첫 구부터 ‘어찌나 힘겨운지’라고 하소연하며 이별로 인한 견디기 힘든 심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헤어지고 아무 소식이 없는 님에 대한 하염없는 기다림은 그리움으로 쌓이고 다시 옛날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던 말은 어제 일처럼 귓가를 맴돈다. 다음 구절에서는 이 사의 뛰어난 묘사가 돋보인다. 님에 대해 끊임없

이 걱정이 생겨나니 그 근심이 별집의 수많은 방 보다 많아 별집이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인다고 비유하고 있다. 다시 그리움에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닷물 보다 많다(傾淚眼、海水猶慳)’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지의 「卜算子」의 ‘이 물이 언제 마르며, 이 한이 언제 그칠까(此水幾時休, 此恨何時已)’라고 표현한 것보다 더 깊어진 감정표현이다. 끝에 세 구절에서는 깊은 밤 은하수도 밤하늘을 돌아 내려오니 주름 사이로 잠들지 못하는 주인공의 얼굴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잠들이 못하는 주인공의 정태적 모습과 고독함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비유와 평범한 구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초기사 들보다 훨씬 높은 예술적 기교와 서정성을 보여준다. 다시 「驀山溪」(次韻徐明叔) 한 수를 보자.

「驀山溪」(次韻徐明叔 서명숙에 차운한다)

神仙院宇,	선녀가 머물던 집,
記得春歸後.	기억하기에 봄이 다 끝나는 시절이었지.
蜂蝶不勝閒,	벌과 나비는 한가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惹殘香、	타다만 향은,
縈紆深透.	구불구불 옷깃 깊이 스며들었지.
玉徽指穩,	거문고 타던 고운 손,
別是一般情,	남다른 감정에,
方永晝.	낮은 길어.
因誰瘦?	누구 때문에 여위었던가?
都爲天然秀.	모두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을.

桐陰未減,	오동나무 그림자 그대로 인데,
獨自攜芳酌.	혼자 꽃술을 든다.
再弄想前歡,	옛 즐거움 다시 살리려,
拊金樽、	금 술잔을 잡아본들,
何時似舊.	어찌 옛날만 하리.
憑誰說與,	누구와 함께 담소하랴?
潘鬢轉添霜,	짙은 머리는 서리가 내리어
飛隴首.	산머리에는 날리는 구름 같네.
雲將顰,	구름도 찌푸리려 함은,
應念相思久.	오랜 그리움이 깊어서겠지.

이 사는 상편에서는 양주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하편에서는 혼자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편 첫 구에서 ‘선녀가 머물던 집(神仙院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의 작품들에서 양주를 선녀로 묘사한 것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특히 상편에서 ‘거문고(玉徽)’를 타던 ‘고운 손(指穩)’이라 묘사한 것은 「清平樂」(聽楊姝琴)에서 양주의 거문고 가락을 듣고 그 손을 ‘마고선녀의 아름다운 손길(麻姑妙手)’이나 ‘섬섬옥수(玉指)’로 묘사한 것과 같아 이 작품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양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편의 마지막 구에서 ‘누구 때문에 늙어 가는지(因誰瘦)’라고 하여 질문을 던지고 ‘모두 하늘이 운명 지었다(都爲天然秀)’고 답한 것은 이전 사에서 볼 수 없는 달관적 심경을 느낄 수 있다. 하편에서도 그의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혼자 꽃술을 든다(獨自攜芳酌)’는 것이나 ‘금 술잔을 잡아보는(拊金樽)’ 것은 모두 홀로된 현재에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찌 옛날만 하리(何時似舊)’ 하고 자답하고 ‘누구와 함께 담소하리(憑誰說與)’라고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처지임을 토로하고 있다. 다음 구에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짙은 머리는 서리가 내리어, 산머리에 날리는 구름 같다(潘鬢轉添霜, 飛隴首)’고 묘사해 걱정과 근심으로 세월을 보냈음을 나타냈다<sup>23)</sup>. 마지막 두 구에서는 ‘구름도 찌푸린 것은, 오랜 그리움이 깊어서겠지(雲將皺, 應念相思久)’라는 의인화를 통해 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구름이 잔뜩 몰려와 비를 내릴 것 같은 모습을 구름이 찌푸리려 한다고 묘사했다. 먹구름이 이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먹구름처럼 찌푸려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품격의 작품이다. 이전 사에서 보기 힘든 비유의 참신성과 서정성이 돋보인다. 다시 「驀山溪」한 수를 보자.

「驀山溪」

晚來寒甚,  
密雪穿庭戶.  
如在廣寒宮,  
驚滿目、  
瑤林瓊樹.  
佳人乘興,  
應是得歡多,  
泛新聲,

저녁이 오니 더욱 추워지고,  
함박눈은 온 집에 빼곡하게 내리어  
달나라 광한궁에 있는 듯  
눈에 보이는 것 모두 경이롭게,  
옥 같이 된 숲과 나무  
고운이 흥에 겨워  
얼마나 기뻐하는지  
노래가 흘러넘치고

22) 「清平樂」(聽楊姝琴)에서 양주를 ‘은은한 선녀 같은 그대(殷勤仙友)’나 ‘마고선녀(麻姑)’라고 묘사하고 있고 「浣溪沙」(為楊姝作)에서도 ‘선녀 같은 그대(道骨仙風雲外侶)’로 표현하고 있다.

23) 이 구절은 柳永의 「曲玉管」 작품에서 ‘산위로 구름 날리고(隴首雲飛)’라고 묘사하는 것과 유사하여 유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한다.

催金盞,	술잔을 재촉하며
別有留心處.	특별히 마음 둔 장소였지.
爭知這裡,	어찌 알았으랴 이곳이
沒個人言語.	말할 사람 하나 없이 됨을
撥盡火邊灰,	타버린 불속 재를 뒤집듯
攪愁腸,	애간장 다 뒤집어질 때
飛花舞絮.	꽃잎은 날아가고 버들개지들은 춤춘다.
憑誰子細,	누구와 함께 새록새록
說與此時情,	이 마음을 같이 말하리
歡暫歇,	즐거움을 잠시 그치니
酒微醺,	술이 살짝 오르고
還解相思否.	다시 보고픈 마음 풀 수 있을까 ?

이 사는 같은 장소를 두고 상편과 하편의 서로 다른 계절에 느끼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했다. 먼저 상편에서는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아름다운 세상에서 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을 묘사했다. 눈이 내려 숲과 나무가 새하얗게 바뀐 것을 조각한 옥처럼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작가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음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또 님과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장소였음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하편에서는 따뜻한 봄날이 되어 같은 곳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타버린 화롯불 속 불씨를 다시 뒤집어도 재만 날리듯 자신의 심경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심하게도 꽃잎은 날리고 버들개지는 춤춘다. 아름다운 봄 풍경과 대비적인 고독한 자신의 처지는 더욱 처량함을 자아낸다. 아름다운 봄날을 같이 할 님이 곁에 없으니 홀로 술을 마시다 잠시 멈춘다. 그렇게 잠시 쉬니 술이 오르고 또 다시 님 생각이 간절해진다. 작가는 마지막 구에서 ‘다시 보고픈 마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위의 「驀山溪」(次韻徐明叔)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상편에서 과거 그녀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하고 하편에서 현재의 처연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용어의 활용에 있어서도 ‘憑誰說與(누구와 함께 담소하라)’ 「驀山溪」(次韻徐明叔)는 표현과 이 작품의 ‘憑誰子細, 說與此時情(누구와 함께 새록새록, 이 마음을 같이 말하리)’는 매우 유사하다. 두 구의 앞의 글자 ‘憑誰’와 ‘說與’를 합치면 ‘憑誰說與’가 된다. 또 「驀山溪」(次韻徐明叔)의 마지막 구에서 ‘應念相思久(오랜 그리움이 깊어서겠지)’같이 ‘相思’라는 사어를 써서 끝은 맺는 것이나 위 작품의 ‘還解相思否(다시 보고픈 마음 해

결할 수 있을까?)’도 같은 ‘相思’라는 사어를 써서 끝을 맺고 있다. 단어의 選用이나 내용이 비슷하다. 즉 작품구성의 유사성이나 작가의 감정을 볼 때 비슷한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지의가 양주와 헤어지고 이후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문헌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이지 of 사 작품 속에서 만년에 양주와 다시 재회한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가 복권되고 이후 양주와 아들을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당도에서 오랜 원한 관계를 가진 郭祥正과 그와 관련된 지방관들과의 갈등으로 평탄한 삶은 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이외에도 이지의가 쓴 연정사로는 「千秋歲」(萬紅暄晝), 「江神子」(惱人天氣雪消時), 「江神子」(闌干拍遍等新紅), 「千秋歲」(深簾靜晝) 등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생애를 볼 때 대부분의 연정사들은 양주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 4. 李之儀 詞論으로 본 戀情詞

이지의 사를 연구하면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의 사론이다. 그는 李清照 보다 앞서 사의 역사와 풍격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그는 「跋戚氏」, 「書樂府長短句後」, 「跋吳思道小詞」, 「跋山谷二詞」, 「跋〈小重山〉詞」, 「再跋〈小重山〉後」, 「題賀方回詞」, 「跋〈凌歊引〉後」 등의 글에서 많은 사와 관련된 글을 썼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으로 언급한 것은 「跋吳思道小詞」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단구는 사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격을 갖추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격에 맞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唐人들은 오로지 시구 뒤에 목소리의 높낮이만 맞추었으니 마치 요즘 「陽關」을 노래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당 말에 그 소리의 장단에 따라 가사의 의미를 붙여 넣으니, 처음으로 음률이 갖추어지게 된 변화였다. 대저 『화간집』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니 짧은 소령이 많았다. 유영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멋진 시어를) 나열하고 자세히 서술하여 잘 갖추어진 것 같았지만 여운이 없었다. 그러나 묘사하는 것이 지극히 분명하여 천 년 전 그 날을 지금 만난 것 같이 했다. 『화간』의 작품과 비교하자면 운율이 결과적으

24) 이지의 만년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湯華泉, 「李之儀晚年四事新考」(『滁州學院學報』第1期, 2008)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양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로 (화간사만) 못했다. 이로서 사 창작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장자야(장선)는 홀로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하려고 떨쳐 일어나 비록 진력하여 쫓아갔지만 재능은 부족하고 감정은 넘쳤다. 팬찮은 사인으로는 안원현(안수) 구양문충공(구양수) 송경문 등으로 즉 그 여력을 유희적으로 즐기며 (창작했지만) 풍류적이고 한적한 우아함이 있었지만 기존(화간류)과 같은 그러한 작품들은 아니었다. (오사도의 사를) 찬찬히 음미하고 살펴보면 글자 글자가 모두 근거가 있으니 그 기막힘은 마지막 장에 있는데 말은 다하였어도 뜻은 다하지 않았고, 뜻은 다하였어도 정취는 다하지 않으니 어찌 평범하게 구할 수 있는 작품들과 같다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의 정밀하고 깊이 있음은 전적으로 화간집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그 스스로 체득한 부분은 (내) 짧은 견해로 쉽게 논할 바가 못 된다. 만약 안수, 구양수, 송경문을 모범으로 삼고 장선과 유영의 것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면 그 발전함을 장차 막을 수 없을 것이다.<sup>25)</sup>

이처럼 이지와의 사론은 그의 사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의 창작 기준을 『화간』으로 보고 있어 그의 사 창작도 완악한 화간사풍을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지와의 유영사를 논하고 있다. 유영 사의 아름다운 문사를 긍정하고 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선사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 사가 지나치게 정적으로 흐른 것에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안수, 구양수, 송경문과 같은 작가들의 풍류적이고 한가하고 우아한 사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화간사풍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기준점을 두고 보면 우리는 이지와의 추구했던 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본인의 사론 끝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화간사풍을 근간으로 하지만 유영사와 같이 아름다운 문사를 활용하여야 하고, 장선 사 처럼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으면서도 안수나 구양수 작가들의 사와 같이 격조를 잃지 않는 사를 추구한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화간사와 같은 소령이나 유영의 만사에 대해 다 같이 긍정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사에서 전달할 작가의 소회를 마지막 구절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의 예술적 풍격에 대해서는 말은 다해도 뜻은 다하지 않았고, 뜻은 다해도 정취는 다하지 않는 여운의 미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이지와의 사론에 대해 대만학자 黃雅莉 또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26)</sup> 대륙학자 韓華 역시 이런 사론

25) 長短句於遺詞中最為難工，自有一種風格，稍不如格，便覺齟齬。唐人但以詩句，而下用和聲抑揚以就之，若今之歌陽關是也。至唐末，遂因其聲之長短句，而以意填之，始一變以成音律，大抵以『花間集』中所載為宗，然多小闕，至柳耆卿，始鋪敘展衍，備足無餘，形容盛明，千載如逢當日；較之『花間』所集，韻終不勝。由是知其為難能也。張子野獨矯拂而振起之，雖刻意追逐，要是才不足而情有餘。良可佳者，晏元憲、歐陽文忠、宋景文，則以其餘力遊戲，而風流閒雅，超出意表，又非其類也。諦味研究，字字皆有據，而其妙見於卒章，語盡而意不盡，意盡而情不盡，豈平平可得彷彿哉？思道殫思精詣，專以『花間』所集為準，其自得處，未易咫尺可論。苟輔之以晏、歐陽、宋，而取捨於張、柳，其進也，將不可得而禦矣。『跋吳思道小詞』，『姑溪居士文集』卷四十。中華書局，p.310.

적 관점에서 이지의의 연정사를 분석했다.”<sup>27)</sup>

이상의 여러 관점을 종합할 때 이지의의 사론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사사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보여준다. 이지의는李清照가 『詞論』에서 ‘사가 독립적 하나의 문학 장르(詞別是一家)’임을 논하기에 앞서 사를 ‘스스로 하나의 풍격을 갖춘(自有一種風格)’ 장르임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형식적 면에서는 소령과 만사에 대해 모두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의 예술적 기교면에서 수사적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풍격적 측면에서는 여운의 미와 한아한 정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사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승전결을 갖추되 끝 구절에 핵심적 내용이 들어가韻外之趣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짧은 사론을 통해 사의 역사적 의미와 사의 형식, 예술적 기교, 풍격, 내용구성 등을 두루 언급했다. 이는 소식의 ‘시를 쓰듯 사를 짓는 것(以詩爲詞)’에 대한 교정이며 사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논한 의미 있는 사론이라 하겠다.

## 5. 결론

우리는 이지의의 연정사를 그의 생애와 개인적 조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지의는 당쟁에 휘말려 오랜 기간 폄적생활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폄적지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자기 양주를 위해 이지의는 많은 연정사를 창작하게 된다. 이런 정치적 풍파와 양주와의 조우는 이지의 사의 내용과 풍격을 변화시켰다. 그의 초기사가 완약한 화

26) 黃雅莉는 “첫째 사란 스스로 하나의 풍격(自有一種風格)을 갖추고 있는 문학형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기준을 『화간집』로 삼았다. 두 번째는 사가 문사의 아름다움(鋪叙展衍)과 운율적 맛(韻味)이 두루 갖추어져야 한다는 심미적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체제상 소령과 장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네 번째는 창작주체로서 말할 때 그는 詞家は 재능과 감정을 같이 중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 처음으로 사를 짓는 법을 논했는데 ‘글자마다 내원이 있고’ ‘오묘한 뜻은 마지막장에 드러내야 한다.’는 창작의 境界를 강조했다. 여섯 번째는 사사의 발전으로 사를 논하였는데 처음으로 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근거로 사를 배우는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李之儀詞學觀在宋代詞論中的位置」, 『東華人文學報』第9期, 2006, p.135.

27) 韓華는 “첫째로 유명사의 ‘멋진 문사를 나열함과 넘쳐나지만 여운이 없음’을 두고 그 배울 것은 배우지만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여운이 없는 병폐는 피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장선사의 ‘정감적 여운이 남음’을 배울 것을 주장했다. 세 번째는 晏殊 歐陽修 등의 ‘풍류적이고 閑雅하지만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배울 것을 주장했다. 네 번째로 작품 마지막 구의 말을 다해도 뜻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여도 정취는 다하지 않는’ 예술미를 중시할 것을 주장다. 다섯 번째로 민가풍의 구절들을 사에 넣었다.”고 보았다. 「李之儀의相思詞」, 『西北地域文學與文化』, 寧夏人民出版社, 2012, pp.155-159.

간사풍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면 폼적 이후 이지의사를 살펴보면 완약한 화간사풍은 점차 벌어지고 그만의 清新하고 深遠한 풍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폼적지에서 양주와의 만남은 깊은 抒情性이 배어 나오는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후대 평론가들은 그의사를 古樂府나 民歌의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한다. 毛晉은 「姑溪詞跋」에서 “고계의사는 차운한 것이 많은데 그 중 소령은 평담한 언어, 풍경을 묘사한 언어, 감정이 담긴 언어(淡語, 景語, 情語)가 돋보인다. ‘나는 장강의 머리에 살고(我住江長頭)’ 같이 말하는 것은 고악부의 빼어난 용어이다(姑溪詞多次韻, 小令更長於淡語、景語、情語. 至若“我住江長頭”云云, 直是古樂府俊語矣.)”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薛礪若 선생은 『宋詞通論』에서 “이지의사는 매우 빼어나고 맵시 있으면서 또다른 독특한 풍격을 갖추었다. 그의 「卜算子」는 지극히 質朴하고 精美하여 「子夜歌」와 「古詩十九首」 처럼 진솔하다.<sup>28)</sup>”고 했다. 이렇게 이지의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도 이지의사의 창작 대상이나 공유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의는 양주라는 가기와 운명적으로 만나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녀와 가정을 꾸리었고 다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헤어지게 되었다. 즉 그의 연정사는 구체적 대상이 있었다. 그 대상인 양주가 신분이 낮은 가기였기에 이지의가 쓴 연정사는 그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平淡하면서 진솔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지의는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의사 창작은 다른 사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만의 풍격을 만들었다. 그의사론에 따르면 사는 전통적 화간사풍을 이어가면서 유영과 장선 같은 진솔한 감정의 전달을 창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안수와 구양수 송경문 같은 문인사인들의 清雅한 풍격을 따라가는 것을 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보았다. 사에 대한 그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소동파가 豪放한사를 쓰고 ‘詞의 詩化’를 추구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民歌의 이고 平易한 언어를 통한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사는 일반 대중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고 후대사 창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8) 李之儀의詞, 很雋美俏麗, 另具一個獨特的風調. 他的「卜算子」, 寫得極質朴精美, 宛如「子夜歌」與「古詩十九首」的真摯. 薛礪若, 『宋詞通論』, 吉林人民出版社, 2013.



## 【참고문헌】

### <단행본>

- 李之儀, 『姑溪居士全集』, 中華書局, 1985.  
唐圭璋, 『全宋詞』, 中華書局, 1995.  
脫 脫, 『宋史』, 中華書局, 1995.  
紀 昀,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中華書局, 1998.  
徐 松, 『宋會要輯稿』, 世界書局, 1964.  
薛礪若, 『宋詞通論』, 吉林人民出版社, 2013.  
韓 華, 『李之儀及其詩詞創作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劉 默, 『宋詞鑑賞大全集』, 中國華僑出版社, 2012.

### <논문>

- 湯華泉, 「之儀晚年四事新考」, 『滁州學院學報』第1期, 2008.  
高 峯, 「論李之儀詞的童眞之美」,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第4期, 2014.  
黃雅莉, 「李之儀詞學觀在宋代詞論中的位置」, 『東華人文學報』第9期, 2006.  
曾棗莊, 「姑溪居士的詞論與詞作」, 『文學遺產』, 第2期, 1991.  
——, 「李之儀年譜」, 『宋代文化研究』, 第4輯, 1994.  
韓 華, 「李之儀的相思詞」, 『西北地域文學與文化』, 寧夏人民出版社, 2012.  
魏芳芳, 「李之儀詞研究」, 湘潭大學 碩士論文, 2011.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李之儀, 楊姝, 戀情詞, 詞論, 歌妓, 風格, 生涯				
Key Words	영문	Li Zhi Yi, Yang Zhu, Romantic Ci, Commentary, Geisha, Style, Life				
<div>Li Zhi Yi(李之儀)'s Romantic Ci(詞) and Commentary</div> <div>Jung Tae-Up</div> <div>Li Zhi Yi(李之儀) was a poet and disciple of Su Shi(蘇軾). His Ci(詞) had a gentle and elegant style, quite distinctive from Su Shi's bold and unconstrained approach. This style is rooted in Li Zhi Yi's life journey and his perspective on Ci. When he was relegated and banished from the court to live in Dangtu(當塗), he met Yang Zhu(楊姝) who was a geisha(歌妓). Their encounter was deemed destiny, and they came together as a family and had children of their own. Later they were forced to separate caught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scheme. In the midst of such turmoil, Li Zhi Yi wrote a series of romantic poetry for his loved one. More than half of his works are actually love poems.</div> <div>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such poems are 'graceful and restrained', 'pure and refined', and 'folk style(民歌)'. Such styl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lifelong agony of this poet. His style raised the standard for future Ci(詞). This paper examines Li Zhi Yi's romantic poetry and its commentary and discusses his stylistic characteristics.</div>						
저 자	정태업 / 鄭台業 / Jung Tae-Up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02.	심 사 일	2023.03.10.	게재확정일	2023.03.20.